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 社說

###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一

本社主催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는 十五日부터 京城運動場에 開催되엿다. 參加團體 十二, 朝鮮十三道中 거어 大多數道가 이에 參加한만큼 名實共히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라할만하다. 本社가 都市對抗蹴球大會를 主催한것은 말할것도 업시 各都市가 蹴球라는 스포—츠를 通하야 親睦과 連絡을 圖謀하라는 二重의 意義로써다. 그러므로 今次의 都市對抗蹴球大會는 一學校의 運動會나 一都會內의 競技보다 範圍가 廣汎한 同時에 그 意義도 重大하다 안흘수업다.

二

흔히 對抗競技라하면 勝事에 重點을 두어 勝利만을 爲主하는 傾向이 잇는바 어젓도 各自의 都市 又는 學校라는 團體의 名譽를 背景으로 하는만큼 無理가 아니나 스포—츠의 眞正한 精神으로 보면 勝負는 늘 제 問題요, 勇敢하게 싸우는것이다. 그러므로 競技中에 잇서 少許도 스포—츠맨쉽을 일치안흔 이 엇는것을 期待하는 同時에 이것을 機會로 各都市가 一層 和睦하고 親近해지고 써朝鮮의 運動界가 一層 進步될것으로 생각한다. 大會는 四日間을 繼續할지나 끗까지 스포—츠맨쉽을 發揮하야 有終의 美를 收하기 바란다.

### 春川農校에 曙光

小林氏의 篤志的美擧

一

讀者 城南中學에 五十萬圓이란 巨財를 寄捐한 小林采男氏는 今次 春川農校에 新築費로 二十五萬圓을 恐懼하엿다한다. 小林氏의 美擧에 對하야는 前日 本欄에서도 稱頌한바잇거니와 今次 또다시 巨財를 朝鮮의 敎育機關에 喜捐하는것은 그 心情의 따뜻함을 다시금 感謝치안흘수업다.

二

대개 사람으로서 蓄財를 하기는 쉬워도 해치 公益에 쓰기는 어렵고 公益이라할지라도 제故鄕 제地方에 쓰기는 쉬워도 他鄕 他處에 쓰기는 어렵다. 小林氏는 그 巨財를 公益을 爲해 喜捐했고 또 朝鮮人敎育機關을 위해 恐懼하얏스니 一層 빗난일이라 아니할수업다. 사람은 小林氏의 心情을 如何히 解釋할지라도 巨財를 公益事業에 投하얏다는 事實 그뿐아니라 그것을 朝鮮人育英事業에 던젓다는 事實은 燦然히 빗나지 안흘수 업다. 朝鮮사람으로서 오히려 蓄財를 하고每年 數萬의 兒童들이 入學難에 허덕이는 慘狀을 보면서도 祝而不見의 態度를 取하고잇는 만흔 守錢奴들을 보고 小林氏가 쓴 篤志家의 喜捐을 몹시 言로 自愧함을 不禁하게된다. 小林氏의 美擧를 感謝하는 同時에 어것을 機會로한흔 篤志家가 輩出하기를 바라는바이다.

# 領事舘閉鎖要求의 撤回交涉貫徹에 邁進

## 蘇聯은 依然我要求를 拒絶

## 我外務當局談發表

【東京電話同盟】 帝國政府는 앞서 蘇聯政府의 我二個領事館閉鎖要求의 不法을 强調하야 그要求의 撤回를 折衝中이든바 十四日 蘇聯政府는 이를 拒絶하야왓스므로 我外務當局은 蘇聯政府의 態度를 자못遺憾으로여기고 我要求貫徹에 邁進하는同時에 十五日 左와 如한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 外務當局談

日蘇領事館閉鎖問題에 對하야 帝國政府는 兩國政府間에 交涉中임에 不拘하고 一方的으로 하바롭프스크 블라고베스첸스크의 我二個領事館에 對하야 十五日限 閉鎖를 要求하야왓스므로 蘇聯政府의 不法한 措置를 撤回시키려고 모처럼 折衝을 繼續하여왓다 이는先般 蘇聯政府가 本問題를 包含한 諸懸案調整에 對하야 提案을 하야온 關係도 잇서 兩國關係를 되도록 正常으로 歸還할 主旨에서 이 提案에 對하야 種種考慮를 加하고 領館附近의 擅入禁止區域인 領海에 不法侵入하야 抑留中이든 蘇聯쿠즈넷토어로와 如함도 我國法이 許하는 範圍에잇서 그 釋放에 盡力하야 同船은 이미 無事히 歸還하얏슴에 不拘하고 蘇聯政府는 諸懸案의 調整을 一步前進시킴에 眞實한 誠意를 示치 안홀뿐아니라 도리혀 最近에이르러 前記二領事館의 閉鎖要求는 蘇聯政府의 決定한바라는等 不可解한 理由를 附하야 閉鎖通告 撤回에 關한 我方의 要求를 拒否하야왓다 帝國政府는 蘇聯政府에 對하야 어대까지 態度의 是正을 强硬히 要求中이나 我方의 公正且協調的 態度에 不拘하고 前記二港의 帝國公館員의 職務執行及安全에 脅威될과 如한 事態가 發生하는 境遇에 잇서서는 그로 生하는 紛爭의 責任은 當然 蘇聯政府가 負할바로 帝國政府로서는 이機會에 다시 蘇聯政府의 猛省을 促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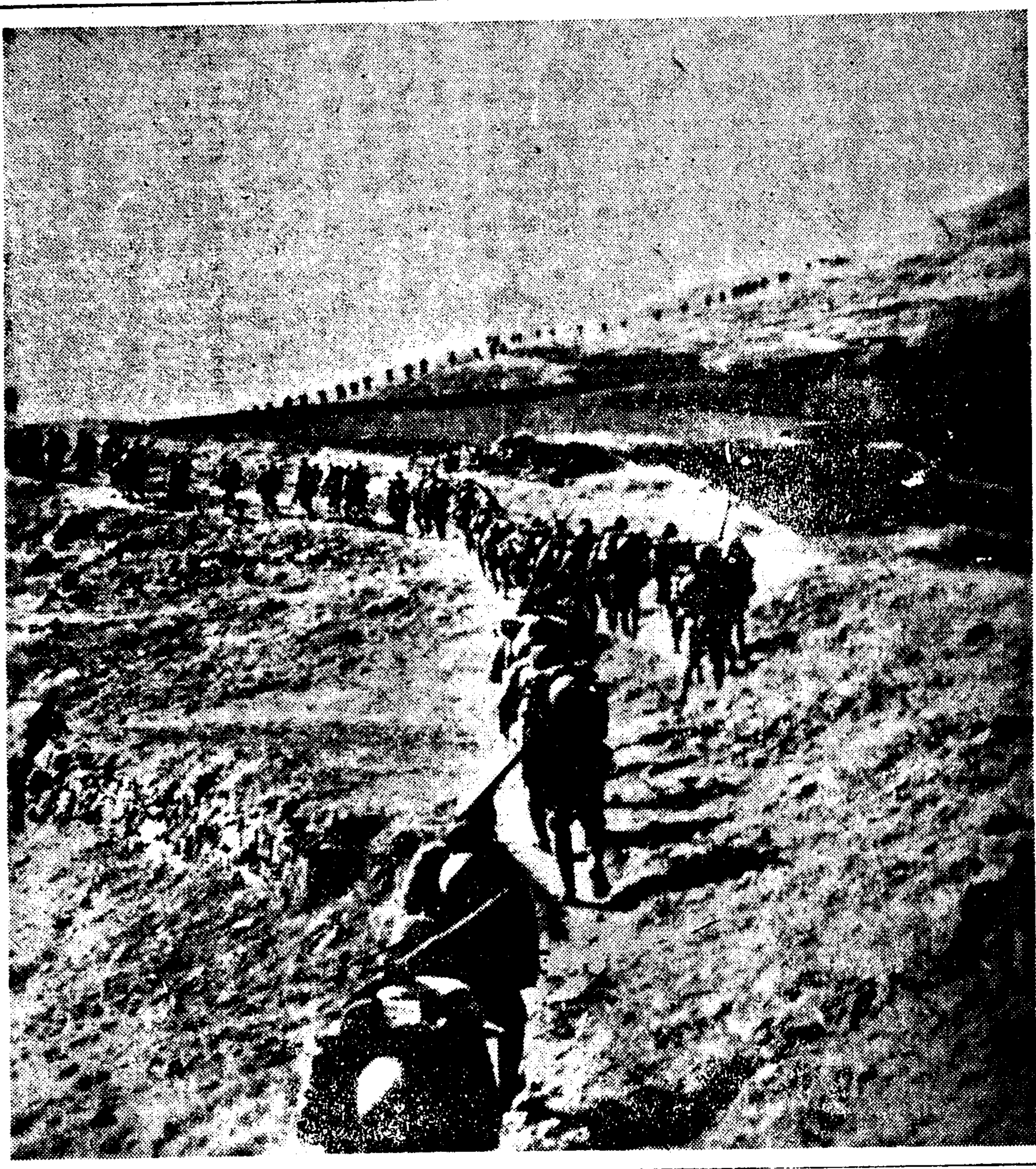
# 山西方面共產軍 根據地完全拔本

【北京十五日發同盟】 山西省의東部大行山脈中에 蟠居하는 朱德을 首領으로한 共產軍及 山西中央 兩敗殘軍約百個師를 殲滅하려고 一齊히 行動을 開始한 各部隊는 破竹의 勢로 廿三日 午前一時卅分 餃松部隊의 武鄕占領에 이어 ○○部隊의 楡社占領으로 共產軍의 本據를 完全히 拔本하고 大行山脈中에서 感激의 凱歌를 높이엇다 또 輕登部隊는 同蒲, 臨汾을 進發, 疾風迅雷의 勢로써 沁縣을 占領하고 西北으로 敵을 壓迫하고 屯留를 進發한 餃松部隊는 到處에서 殘敵을 掃蕩하면서 十日早朝 共產軍의 一根據인 沁縣을 占領하려고 十三日午前一時半 武鄕을 占領 또 潞安으로 부터 北上한工藤部隊는 八日襄垣을 占領한後 附近殘敵을 掃蕩하고 ○○部隊도 東北方으로부터 沁縣東方에 進出하고 ○○部隊는 蘇生嶺附近으로부터 敵의 背後를 遮斷하고 此에 應戰한 石田部隊의 包圍陣은 完成되엿다 이리하야 敵은 漸次 壓迫되야 縮少되어 드되어 沁源, 沁縣城에 다을가는 本據地 楡社, 武鄕을 我軍에게 占領되어 玆에 完全히 潰滅되게 되엿다

【北京十五日發同盟】 山西省東方山岳地帶의 共產軍을 掃蕩中이든 我○○部隊는 十四日午後七時三十分 共產軍의 本據楡社를 占領하엿다 共產軍은 本據陷落에 依하야 致命的打擊을 밧고 朱德以下山岳地帶로 逃走하엿다

【太原十五日發同盟】 去十二日夕 烈洪水嶺附近에서 約三千의 敵을 殲滅한 工藤部隊는 同朝溫城에 進出, 十三日附近의 殘敵을掃蕩하고 또別動隊는 十一日夕刻 遼縣을占領 十二日附近의 掃蕩을 完了하엿다 어리하야 武鄕 沁縣以南及武鄕東側地區는 全혀 肅正되엿다

【北京十五日發同盟】 十四日午後四時頃 馬頭集附近에 敵約五百의 逆襲이 잇섯는데 岩仲戰車隊는 곳出動하야 此를 擊散하고 凱歌를 올이엇다 敵의 損害는 戰死四十, 負傷七十으로推測되며 我方損害는업다



―堂堂進擊하는 遠山部隊 (垣曲)―

# 馬鴻達

## 反蔣運動에 蹶起?

【北京十三日發同盟】 寧夏省首席馬鴻達의 反蔣態度는 最近漸次露骨化하엿스나 右는支那事變勃發以來 國民黨政權은 國防線充實을 口實삼어 蔣介石直系軍一個師를 寧夏省內에 너허 西北地方에 確固한勢力을扶植한 馬步芳, 馬步靑, 馬仲英, 馬鴻賓等回回敎의 所謂西北五馬의 行動을 監視하려고하는바이나 原來 右에 駐屯한 中央軍의 軍費一切를 現地自擔으로한때문에 元來疲弊해잇는 寧夏省의 困窮은 一層深化하야 民衆의怨嗟는 巷間에充滿하고 게다가 識者間에 蔣政權의 國共合作에 不滿을가저 그壓迫으로부터 離脫할것이라는 主張이 漸次 有力해오는것에 따라서 馬步芳, 馬步靑, 馬仲英等의 回回敎의實

# 飛行機購入工作

## 米國과加奈陀에打診

### 英下院서원타—트卿言明

【倫敦十四日發同盟】 保守黨領袖 원타—튼卿은 十三日 英國下院에서 目下 英國空軍이 米國과加奈陀로부터 飛行機購入의 可能性에對하야 打診的工作을 하고잇다고 言明하야 때마친 米國으로부터 爆擊機五百臺注文說과 相呼應하야 政界에 多大한 波紋을 던지고잇다 但 로이텔通信倫敦支局은

一、米國側의 提供하는 飛行機가 英國空軍의 希望하는바와 合致할지 어떨지 疑問이다

一、現在의 米國飛行機製作工場은 米國陸海軍發注의 飛行機製造에 忙殺되고잇다

고報하고잇다

### 英陸相

#### 마르타島視察

【倫敦十四日發同盟】 英國陸相호—어·벨리샤氏는 十四日午前十一時 倫敦發軍用機로 마르타島軍事施設視察의 길을떠낫다 호어·베리샤陸相은 마르타島旅行의 歸途 二十二日 羅馬에들러 뭇소리니首相과 會見할터이나 英伊協定成立에依하야 兩國間의 關係緊密化가 豫想되는此際 그動靜은 極히 注目된다

### 臨時閣議開催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十六日午前十一時 臨時閣議를열고 傷兵保護院副總裁以下의 人事를 決定하기로되엿다

### 貯蓄獎勵局官制 十五日閣議決定

【東京電話同盟】 大藏省에 新設되는 貯蓄獎勵局官制는 十五日閣議에서 決定한후 即日公布될터인바 開設된後는 貯蓄獎勵運動의 中樞機關으로 企畫그他의 事務에 當할 方針으로 그初代局長으로서는 大藏次官石渡莊太郞氏의 兼務로하고 同勤任次長으로는 理財局國債課長木內四郞氏가 就任하기로 內定되엿다

# 戰時給與規則改正

## 戰線將兵에大福音

【東京電話同盟】 戰時에 勞苦하는 皇軍將兵의 給與를 조금이라도 조케하려는 생각으로 陸軍에서는 十五日 陸達第二十二號로써 戰時給與規則細則의 大改正을 하엿다 改正要點은 戰時給與의糧食中主食을 增加하야 只今까지 三食分을區分하기가 困難하든 數量을三等分할수잇도록 改正된것과 今後 特히 榮養食이라는것을 새로만들어 必要에 應하야 給與하는等인데 다시 日用品도 只今까지 一個月 休紙五十枚로되어 잇는것을 百五十枚로 또 全然업든下帶를 支給 一個月一本 戰線의 將兵과 銃後의 家庭을 맺는 깁븐소식을 優遇 交換시키기爲하야 三個月一本이든 鉛筆이 一個月에 一本으로되고 一個月 二十枚 一個月十枚의 葉書가 一圓 二十枚의 半紙가 必要에 應하야 二十枚로되고 一個月五枚의 封筒을 角封筒十枚로하고 또 이改正과 同時에 馬糧食도 조케改善되엇는바 第一線에 別로 樂이업는 勇士들에게 큰福音을 齎來하는터이다

## 傷兵保護院副總裁

### 岡田文秀氏를起用

【東京電話同盟】 傷兵保護院副總裁는 專任官을 置할方針下에 厚生內務兩省間에서 協議折衝中이든바 十四日夜 木戶厚生相이 末次內相과 會見折衝한結果 長崎縣知事岡田文秀氏를 起用하기로決定 近近閣議에 附하야 本庄大將의 總裁親任과同時에 發令하기로되엿다

### 岡田氏後任은川西氏

【東京電話同盟】 傷兵保護院副總裁로 內定된 岡田長崎縣知事의 後任은 埼玉縣知事 川西實三氏로 內定 十六日臨時閣議에서 他地方長官의 異動과 함께 決定한後 十八日正式發令할터이다

### 人事·集會

◀三宅勝雄氏(第百七十七救護班長) 凱旋人事次來社

◀永山ユキ氏(同救護看護婦長) 同上

### 本社參觀

◀開城貞和尋常小學校生徒七十三名金蘇鱗氏引率下本社見學

# 粵漢鐵道爆破

【上海十五日發同盟】 [illegible] 午前十一時發表＝昨十四日 [illegible] 又[illegible] 廣東方面에서 [illegible] 또天河、白雲兩飛行場에 對하야도 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 通信分掌局

## 監督課長會議

[illegible] 田本[illegible]以下 各[illegible] 企畫主任等 出席 十四、十五의 兩日 [illegible] 開催하고 內地의 郵便規則改正에伴한 朝鮮의改正案에 對하야協議하엿다

[illegible]

# 山海關佛守備隊 滿洲國領에越境

## 外務當局嚴重抗議

【山海關十四日發同盟】 十四日午 後山海關駐屯프랑스守備隊長以下數十名의 守備兵은 武裝한채로 突然滿洲國領內에 越境하야 兵力保護下에 附近의 [illegible] 滿洲國領土內에 [illegible] 右地點은 長城을 距하기約一千米北方으로 北淸事件議定에依하야 設定된 佛國租界에 [illegible]하여잇는明白한

[illegible] 當局은 即時嚴重抗議하엿다

### 閣議後首腦會談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大谷拓相은 十五日 閣議散會後 首相官邸에 남어잇서 때마침 來邸한 荒木參議와 더부러 [illegible] 問題에 關하야 [illegible]하엿다 또吉野商相도 남어잇서 [illegible] 長과會見 北支 中支兩會社設立準備 그他에 對하야協議하엿다

# 獨伊巨頭會見前 佛伊兩國會談乎

【倫敦十四日發同盟】 英國, 伊太利兩國關係調整을目的하는 英伊協定은 마츰내 十六日 羅馬에서 正式調印키로되엿는바 英國政府는 來五月初에 行할 뭇솔리니首相, 히틀러總統의 會談을압두고 다시佛國政府에 勸誘하야 佛伊接近을實現, 英佛伊提携를基礎로 歐洲의新事態에對處할 平和機構確立의 意向이라고傳한다 三日 차노外相과 會見하엿슬때 駐伊英國大使퍼—스卿은 이미 十英國政府는 佛國, 伊太利交涉에 對하야 好意的斡旋의勞를不惜한다는 言을 말하엿다고한다 그리고 할리팍스外相은 十四日午前 外務省으로 코방駐英佛國大使의 來訪을求하야 亦是佛國政府의對伊交涉開始에對한斡旋의件을 말하는同時에 코방大使에對하야 佛國政府는聯盟에 正式으로에디오피아併合不承認決議를 撤回할때에는 駐伊大使를任命하게될것이나 몬저 暫定的措置로서 政界의有力者를 佛國政府代表로서羅馬에派遣하도록 英國側의希望을 表明하엿다고 傳하는以上 英, 佛, 伊三國의接近에備하야 체임벌린首相, 할리팍스外相은 近近달라디에首相, 본네外相等佛國政府의首腦와 會談하기로된바 會談日字, 場所에對하야는 二十二日 巴里에서 伊太利代表를 加하야 會談하게 되리라고도하고 或은 來二十七日倫敦에서 하리라고도 하나 如何間會談이 히틀러總統의 羅馬訪問에압서 行하여질것은 確實하다고보인다

【윈十四日發同盟】 墺太利 官營의『아나』通信社는 獨墺合邦에伴하야 十四日附로써 事業을停止하고 今後는『아나』通信社에代身하야 獨逸聯邦通信社윈支局이 墺太利州에서의 通信活動을 總括하기로되엿다

# 獨滿修好條約

## 近近締結될機運

【東京電話同盟】 獨逸政府는 去二月二十日 國會演說에 잇서서 히틀러 總統의 演說은 滿洲國承認의 意思를 宣明하는바이므로 獨滿兩國政府에서는 伯林에서 右聲明의 具體化에 關하야 交涉을 繼續하고잇든바 近近兩國間에 修好條約의 締結을 보게되엿다 그런데 右條約에 提示된 內容은

一、領事의 任置

一、居留民의 待遇

等을 槪念的으로 規定하는 三四個條로 되것으로 一般的通商航海條約締結의 問題는 今後에 남기어 條約 그 自體의 內容으로서는 外交代表交換에 갓차는 所謂 暫定的條約과 如한것이나 同條約의 締結은 兩國修好關係의 正式條約化로 注目되고잇다

### 차코問題再燃

#### 諸中立國協定案을 兩當事國正式拒絶

【뷔노스아이레스十四日發同盟】 一九三五年休戰以來 未解決대로 放置되여잇든 보리비아, 파라과이兩國國境確定에關한 所謂차코紛爭은 去十二日 亞爾然丁外相카스테이요氏의 訪伯과 同時에 俄然解決의機運이 促進되여 伯國, 亞爾然丁, 智利, 秘露等中立國에서 協議한結果 解決協定案을作成 볼리비아, 파라과이兩當事國에 提示한結果 兩當事國은 十四日 正式으로協定案을拒絶하는 旨를發表하엿다

### 自治制五十周年式典

#### 二重橋前廣場서擧行

【東京電話同盟】 自治制五十周年式典은 來十七日午前十時半부터 宮城二重橋前廣場에서 恐懼하옵게도 聖上陛下의御親臨을仰하와 嚴肅히 擧行될터인데 秩父, 三笠, 賀陽, 久邇, 梨本, 北白川, 竹田各宮殿下께서도 이式典에御參列하옵실것으로 承聞된다

### 米海軍根據地新設案

#### 米下院委員會서否決

【華盛頓十四日發同盟】 下院海軍委員會는 前日에 總費用 一千五百萬弗을 投하야 加州『오클란드』에 海軍補給根據地를 新設할案을 審議中이든바 十四日이것을 마침내否決하엿다

# 電信十五日不通

## 海參威, 우르크츠크間

### 歐洲와電信連絡不能

【上海十五日發同盟】 大北通信會社의 海參威, 우르크츠크間의電信은 十五日도 不通으로되어 歐羅巴와의 電信連絡은 不能하게되엿다 右는 蘇聯官憲에게 差押이된것인지 어떤지 不明하나 昨十四日 蘇聯領事館이 西比利亞鐵道旅客의 査證發行停止의 通報를 한 關係로 볼지라도 蘇聯側의不穩한 空氣를 示하는것으로 보인다

### 夕刊後市況 十五日

◆各地 期米 後止◆

| | 當限 | 中限 | 先限 |
|---|---|---|---|
| 大邱 | 三·四一 | ― | 三·九 |
| 釜山 | ― | ― | 三·六 |
| 群山 | 三·四 | ― | 三·五 |
| 木浦 | ― | 三·六 | 三·六 |
| 下關 | ― | ― | 三·八 |
| 名古 | ― | ― | 三·七 |

◆各地 商品 後引◆

| | 當限 | 先限 |
|---|---|---|
| 大阪棉花 | ― | 一六·五 |
| 大阪人絹 | ― | 一六·六 |
| 福井人絹 | ― | 一六·〇 |
| 橫濱生系 | 六九〇 | 六九〇 |


# 普通文官講義

## 短期獨學으로 判任官!!

### 前年度도 會員五百餘名合格

年年文官普通試驗과 裁判所書記登用試驗 合格者의 七八割을 獨占하는 本會는 前年度도 大藏省、臺灣、神奈川、朝鮮、關東局、北海道等의 六試驗에서 首席合格者와 十六才最年少合格者等의 優秀合格者를 비롯하야 總數五百餘의 合格會員을 내고 다시 此等合格者諸君은 各地官公署에 速續的으로 採用되어 歡喜에 넘친 奉職謝狀은 尙今도 本會編輯室의 机上에 山積하는 盛況을 呈하고 잇다 (觀覽은 每月 會報 讀에 揭載)

## 日鮮滿의 各地官公署에 本會出身會員 充滿!

普通學校나 小學校卒業後獨學으로 官界에 飛躍하려는 靑少年諸君은 오라 創立廿六年 一萬餘名의 試驗合格者, 就職成功者를 내엿다 本講義를 배우면 一年以內에 普通試驗又는 裁判所書記試驗에 合格 朝鮮滿洲는 勿論이고 日本內地의 各官公署에 採用되여 一躍「判任官」으로 될수잇다 本會員의 就職官廳은 內地各府縣을 爲始하야 臺灣, 朝鮮各道滿洲國等에及하고 只今에는 本會出身者의 업는 官公署가 업다는 偉觀을 呈하나다 그리고 의미 高等官으로 樞要의 地位에 잇는 사람들도 多數잇서서 後進會員의 就職을 斡旋하는 故로 本會會員의 就職率은 近時急히 上昇, 一官廳에 十數名의 奉職會員을 보게됨은 稀少하잔타 이리해서 官廳街에 隱然한 大勢力을 가지기에 이르럿다

### 合格者에 奬學資金 其他授與

年年試驗合格者를 表彰하고잇는 本會는 本年도 紀元의 佳節을 卜하야 前年度合格會員中 特히 優秀한 四十五名에게 奬學資金을 또 八十九名에 게 合格賞을 보내여 그 勤學의 功을 表彰하엿다

### 朝鮮普文을征服 官廳就職을望하는 半島靑年은來하라

朝鮮總督府에서 每年八月 普通試驗을 施行해서 合格者는 總督府를 爲始하야 道內諸官公署에 少壯官吏로서 採用하고잇다 半島在住의 靑少年諸君은 卽時 本會로와서 精銳한 講義錄으로 배워서 同試驗을 突破하야 半島施政의 聖戰에 參劃하라 本會員은 年年總合格者의 過半數를 占하야 모두가 感激의 謝狀을 보내고 잇다 只今速成科에 入會하면 今夏의 試驗合格도 可能, 주저말고 오라

東京市澁谷區明治神宮表參道通 大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 振替東京二三四五六番·電話靑山六四番

普文試驗講習 教科書로採用된 本會講義錄

本會講義錄은 從來도 普通試驗施行하는 官廳에서 敎科書로 採用되여 왓스나 樺太廳에서도 普文準備講習會를 開催함을 當하야 本會講義錄을 敎科書에 採用, 二百餘名分의 申込을 바덧고 또 朝鮮咸南定平郡廳에서도 마찬가지로 講習用敎科書로서 結束申込함을바덧다 생각컨데 이러한 事實은 本會講義錄의 眞價를 가장 雄辯으로 實證하는것이다

●華書에 本紙名記入 住所氏名明記申込次 第獨習書 試驗合格 就職成功實例滿載한 百廿頁冊子進呈

# 書道

受驗에도 就職에도 死命을制하는 習字의 寶典

各卷分賣

第一卷「基本字手本と講義」 第二卷「三體大字手本と講義」 第三卷「假名手本と講義」 第四卷「中細字手本と講義」 第五卷「書翰文と日用書式」 以上各卷送料共八拾錢 全卷送料共三圓五十錢

東京市澁谷區幡ケ谷 現代書道講習會 振替東京八八八八番

## 苦待苦待하시던 女性五月號 今日發賣합니다

新鮮한 五月의 感覺과 嶄新한 特別記事로 豊富하게 編輯된 五月特輯·시방곳 注文하시라

定價二十錢(送料二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 本社主催 第一回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 熱血男兒의 攻防神妙

# 龍虎相搏、白兵戰演出

## 初日大人氣·干戈二合의延長決戰

## 平壤、鎭南浦、淸津、京城 各一勝

격전 도격전! 남북삼천리에서 모여든 억세인 우리 젊은이가 버려져 용이냐면 범의열파 힘으로써 개시된 도시대항축구전의 첫날, 십오일 오후의 장렬한 접전은 진남포(鎭南浦)대 대구(大邱)의 대전에잇서서 상대이의 전적으로 진남포가 승전한 뒤를이어 우리축구계의 패자의 전통을 자랑하는 남북의 왕자 평양군과 박력잇는 공격편으로 항상 패권을 엿보는 남북의강자 함흥(咸興)과의 대전이야말로 인끼의 초점이아닐수업섯다 오후 세시 전투의 막을여르니 파연 양군의용사는 각기 자랑스러운 장정의 체격을 뽐내며 노련한기술을 신출귀몰하게 발휘하야 차흥은 시각이 갈수록 백렬화하고 사오천으로 헤이는 장내의 관중은 점점 열광하야 모두가 손에 땀을쥐고 어 남아의 이 장쾌한 차흥을 보는 광영을 느끼게하엿다 차흥에는 끗까지 때기가잇고 우히려 전진에보내는 정에의 도라옴은 『스포-츠맨』의 꼿이엇다 이기던하여 차옴은 결국 추첨으로 승패를결하게되여 평양군에게로승리가도라가고 이어서 남북의패자로 조선의 왕자를 떠메로 자지하는 청진군(淸津軍)과 신진 황해의 신예인 안악군(安岳軍)과 대전하야 이 또한 박열적 접전으로 전반에는 량군 득점업시 후반에드러가 청진군의 예의적공격에 대항키어려워 안악군 련다라 삼점을빼앗겨 삼대령으로 청진이 승리하야 금일에열리는 제이회전에 드러갓다 이로써 제일일의 막은 다치엇다

## 同點으로延長戰

## 平壤軍抽籤勝

### 不運! 咸興軍의健鬪

대회는 오후에들어가서 일층 인기를끌어 관중은 뒤를이어모여들어 스탠드는 남쪽편에 넘치어 다시 북편쪽에까지 갓득 진을치게되엿다 이에게임은 세시부터 이날가장 인기를 끄는 평양(平壤)과 함흥(咸興)의 대전이 열리엿다 평양은 축구왕국의일흥을 가지는곳이만큼 그실력은 더말할여지도업스나 함흥은 련사는 평양만못하더래도 선수의 진용으로보아 종래의평양、경성등지의 명장들이잇서 이 대전은 개전전부터 인끼를끌어 함흥군 가튼 곳은 고향인사들이 응원대를 모아가지고 기세를 올리는등 도양군에게는 고향인사로부터 『추럼증』의 전보가 련달아 날어드러오는등 자못 긴장하엿다 개전하자 처음붓흥쪽진을마튼 평양군은 종세도 불리하엿거니와 함흥군의 맹공격으로 서로 어울리워 싸우는동안 함흥이첫번 득점을엇고 후반전에 드러가 이번은평양이 동점을하야 일대일동점이되니 량군의 공격도 일층백열하거니와 관중석도 열광하야 전세는 예측을 허하지 안는가운데 맹렬히 전행되엿스나 드디어 시간안에 승패를 결하지못하고 연장전을 하엿스나 그때도 승부가 업서서 마츰내 대회규정대로 추첨하니 평양이 승자(勝者)로 뽑히어 함흥군은 뜻하지안흔 실람바게 패전을 보게되엿다

◇平壤軍과 咸興軍의 白兵戰!

**平壤1 咸興1**

【前0…1、後1…0延0…0】

【第二次戰】蹴球部의 名聲을실머진 平壤軍과 關北의雄咸興의 第一回戰은 同午後三時四分부터 櫻田長(主)崔永鍋、朴商允(線)三氏審判아래 咸興킥어프로 開始한바 兩軍始終大接戰을 演하드니 結局所定의 七十分께임에 一對一同點되여 延長戰에드러갓스나 亦是 兩軍得點업서서 大會規定에依하야 抽籤으로勝負를 決하엿다 結果 드디어 平壤軍이 幸運의 籤을뽑아 咸興軍은涙를머금고 惜敗하엿스나 明年을期約하고 물러섯다 그리고平壤軍은第二回戰에드러가 廣州軍과對戰케되엿다

◇前半 께임始作後三分에 咸興攻擊의中樞部分인FW線은 風勢를利用하야 平壤의꼴에리아까지 强迫하엿스나 LI韓君의强蹴은 꼴포스트를시치고꼴아웃되엿다 ◀十分에平壤은『드리볼』前進파스로 페날티에리아까지肉迫하엿스나 平壤의LW李君의 凡蹴으로 노-꼴 ◀咸興은十四分十五分二回에亘하야어든 絶好의찬스인隔蹴은 페날티에리아에密集해잇던 自軍選手의헤딩으로 無爲 ◀二十分咸興의FW線의强襲에 二回의決勝的 드리이오를 利用하야 平壤의CF吳君의强蹴은 꼴포스트右下側에 앗게하엿되여 咸興軍은一點을先取 ◀數次에亘한咸興의攻擊은華麗하아까지 미첫스나 平壤의GK金君의好守와 HB線의固守로 前半은 咸興이 一點을 리-드한채 前半을 마치엇다

◇後半 一點을리-드當한 平壤의 FW線은 死力을다한 攻擊에 咸興은 FW線으로 反擊하야 平壤의 一大時威에 逢着하나 ◀三分에 平壤의FW線의 聯絡好의파스웍은 奏效하야보기조흔 CF의 吳君의 꼴키은 꼴포스트右下側을울려드러가 一點을어더 一對一의 同點이되엿다 ◀五分에 또다시 平壤의 FW線의 風勢를 利用한 攻擊으로 페날티에리아까지 드러가 期待된 CF君의 一蹴은 아까웁게도 橫木을넘어 好機를노치고말엇다 ◀十三分에 咸興은 攻擊으로 너무 深出한 HB線과 FB線의비롤흔리서 二回나亘해咸興의 LW張君의 歐蹴한 『드리볼』파스를平壤의꼴直前까지 가든것을 아깝게 防禦하엿다 ◀咸興의FW線파 HB線은 맹렬히 攻擊하엿스나 平壤의FB線은 서로 交替해가면서 正確한포지슌 을지키고 좀처럼 드러오지 안는 平壤에 咸興의FW線은 꼴을 쉬 어딜줄 모르고 自然的으로 攻擊하엿다 ◀咸興의FW線과 HB線은 맹렬히 攻擊하엿스나 平壤의 FB線은 守備에만 全力을다하야 咸興軍의 攻擊을 防禦하엿다 ◀二十八分에 平壤의RW朴君의 꼴직전에서 決定的파스웍으로 꼴直前까지 肉迫하엿스나 꼴키퍼 金君이 다시이를 防禦하야 無得點 ◀平壤의 FW線은 中盤으로 드러가 咸興의 FB線의 好守로 결국 一對一 同點으로 後半을 마치엇다

◇延長 一分咸興은 一擊에平壤의 『前』까지 맹렬히파스로 肉迫하엿스나 『드리볼』 파스가아니라 前方으로全部GK의 好守로 라인 밧게나가고 ◀平壤의 FW線은 다시 맹렬히 攻擊하엿스나 平壤의GK金君의 好守에 노-꼴 ◀平壤의 FW線은 코-너킥으로 巧妙한파스를 하야 咸興의 FB線을 돌파하야 꼴까지 드러갓스나 GK의好守로 노-꼴 ◀兩軍守備보담도攻擊에 努力하엿스나 兩軍 모두 得點업시 延長戰을 마치고 大會規定에 依하야 抽籤으로 勝負를 決하게되엿다

| | 【平壤】 | | | | | 【咸興】 | | | |
|---|---|---|---|---|---|---|---|---|---|
| | | 前 | 後 | 延 | 計 | | 前 | 後 | 延 | 計 |
| 蹴門 | | 9 | 5 | 2 | 16 | | 2 | 4 | 4 | 10 |
| 隅蹴 | | 2 | 2 | 1 | 5 | | 0 | 1 | 1 | 2 |
| 自由 | | 1 | 0 | 1 | 2 | | 1 | 3 | 0 | 4 |
| 懲罰 | | 0 | 0 | 0 | 0 | | 0 | 0 | 0 | 0 |

【平壤】GK金 RF李 LF吳 RH金 CH[illegible] LH朴 RW安 RI玉 CF吳 LI韓 LW李
【咸興】GK張 RF[illegible] LF金 RH毛 CH宋 LH[illegible] RW黃 RI李 CF金 LI李 LW洪

### 最後의瞬間까지

## 謙讓의美德發輝

=平壤、咸興兩軍主將의劇的抽籤光景=

일대일의 스코어! 마즈 부는 나지안코 관중은 침 봉부석아떼 모혀섯다 (승부 막 십분 오분 여기에는 다 을 삼켯슬따름——대회의규 의표쪽을 갈수온 뭉루!범 만 백열화한 공격이잇슬뿐 정에의하야 이제 추첨으로 파사자처럼 기운차고 산을 어다 이리하야 후반전이끗 써 복이아닌 승패를결정할 떠갈것가러 날뛰든 두용사 나도 승부는 결정되지안코 수바게 업시되엿다 함흥주 들이 조그마한 가벼운봉투 드디어 어십분의 연장전에 장 모기춘(毛麒春)군과 평 한장잡기로 승패를 결한단 드러갓스나 그러나 역시승 양주장 강기순(康基淳)군이 말인가 평양군의주장 강군은『생전 뽑차기하다 제비뽑기라구는 처음보네! 여보자 먼저뽑으시요』하니 함흥주장『아니 먼저뽑으시요』 이러케 서로 승패의 기로에서 사양하는광경은 파연백전노장들의 유유한기개이엇다 아니 기운은 아직기운껏 남겨두고 원수스러운 한장의 봉투를 떼어서돌고속장이 무엇이냐를 알어보려고도 안는광경이 비장하야 여간눈물겨운것이 아니엇다 그사내 그장부에게는。

# 京城의精銳强軍과

# 南北의七雄出陣

## 豫想不許의今日戰局

장안의 시청을총집중한곳에서 금십육일오후령시반부터 도시대항축구 제이일의막이 열리게되엿다 지난날의열전을거치고 또는 행운의첨을뽑아 부전일승하야 제이회전에 드러간여들팀의 접전이 전개될터인데 첫께임은 전일에 대구를이긴 진남포와멀리 호남의강진 광주(光州)가 대치케되여 오랫만에보는 호남건아의 활약도볼만할것이다 그리고 함흥과 백병전을연출하다가 추첨으로이긴 평양과 경기도 광주(廣州)와의 제이회전이열리게되엿고 세째로열리는 께임이야말로 만도팬이 손꼽아기다리든대경성(大京城)의 대표군이 처음으로 등장하야 강원도의강호 철원(鐵原)군과 대전케되엿는데 경성군에는 세게올림픽에 출전햇든 사게의총아김용식(金容植)군을 비롯하야 동경유학시대의 보배 조홍(趙[illegible])리유형(李裕瀅)군은 물론이고 정룡수(鄭龍洙)김성간(金成玕)등의 맹장들이 총출장하야 더한층이채를 띄울것이다 이날마즈막께임은 국경의 거포 신의주(新義州)와 전일안악을이긴 청진군이 결전케되엿는데 이또한백열전을 연출할것이로 때마츰오늘은 토요일이라 훈련원두는 인파만경을 이룰것으로기대된다

### 京城軍不戰勝

부산(釜山)대경성전은부산의기권으로 경성이부전일승하엿다

## 시골학생더러 먹은운전수

함남신흥군가평면(咸南新興郡加平面)에사는 리춘빈(李春彬)(一七)은 경성고등부기학원에 입학하려고 십오일오전여덟시 용산역(龍山驛)에 나려서 『택시-』를 타고 황금정(黃金町)으로 오려다 부기학원까지 갓섯는데 운전수가 『아직시간이 안되엿스니 시내구경이나하자』고하며 창경원(昌慶苑)한강철교로『드라이브』를하고 정오경 연병정(練兵町)에잇는 모식당에 드러가서 점심을 먹고 그운전수가 아고 꾀여서 춘빈군이가지고 온돈 오십원을 바더가지고 변소에 가는체하며 자동차를 타고 도망하엿다는데 이보고를바든 본정서에서는 이악덕운전수의 행방을 엄탐중이다 또한 이소년은 시골서왓스니만치 자동차의 번호 또는 운전수의 이름도를 몰라서 수사는 상당히 어려울것같다고한다



◀고대하든 벗꼿도 바야흐로 피려하야 살림만상이 성장하는봄 ◀이봄을반가히마저 씩씩하게자라나야할 어린외도들이 ◀입학시험이라는 인외지시련의 히생이되야 그시련을 참지못하고 독약을먹는등 집을나가는등 그런가보다 햇더니 이번은도쳘도에뛰어든것이잇섯다 ◀실패는성공의기초라고하엿슨가? 어리라 재생들이여! 라제생이라는 비우승에 자포자기치말라 ◀라제생을 가진부형들이여! 라제하엿다고공연히 무지지말라 ◀인생은 시련을 이겨야공을일훔을 부형이나 어린학생 기는 한층 더주의를 하야 명심키를 하자

◀四月十六日(土曜)、陰三月十六日。◀干支戊寅

◀日出五時五十九分 ◀日入十九時九分 ◀日南中十二時三十三分二十秒 ◀滿潮十三時十分 ◀月入六時三十分 ◀滿潮(仁川)十二時十五分 ◀月出二十時四十八分

## 安岳軍力戰不及

## 强豪淸津軍快勝

**淸津3 安岳0**

【前0…0、後3…0】

【第四次戰】…淸津對安岳戰은同午後五時二十分부터 審判崔正柱(主)朴錫與、林鶴植三氏審判下에 淸津先蹴으로 開始되엿는데 結局三對零으로 淸津軍快勝하야第二回戰에 드러가서 新義州軍과對戰케되엿다

◇前半 三分安岳自由蹴의最初의 찬스는 꼴포스트의 橫木부 터 나감 ◀淸津은 R1洪君의 꼴키은 橫木을넘어서 再次好機를 노치고 ◀十分에 安岳期待된 FB線의 强攻으로 淸津의 꼴키퍼는 파스를 노치고 ◀淸津軍에서 어든 猛烈한 攻擊을 방어하엿스나 FB線에게 찬스를 빼앗기어 絶好의찬스를『파스』에 失敗하고말엇다 ◀十九分에 淸津의 FB線의 빈틈을 타서 安岳의 RW姜君이 애리아까지드리볼로 몰고드러가 强蹴하엿스나 淸津의 GK張君의 파인 캐취로 노-꼴 ◀淸津의 FW線은 猛烈한 바람을 利用하야 强迫한 FB線을 몰아서 安岳의 攻擊에 注力한바 兩軍이 屢次 攻擊하엿스나 FB線의 敵陣까지强迫하엿스나 一點도어더지못하고 前半은 兩軍無得點으로 마치엇다

◇後半 十一分에 淸津軍은 絶好한『파스웍』으로 安岳의 꼴라인까지 肉迫하엿스나 安岳의 FB線의 猛烈한 防禦에 노-꼴로前半을 마치엇다 ◀後半 淸津의 LI高君의 好守로 安岳의 FW線은 攻擊을 하엿스나 淸津의 꼴직전에서 『파스웍』으로 得點하야 一點을先取하엿다 ◀一點을 取한 淸津軍은 攻擊을 繼續하야 安岳의 FB라인까지 强迫하야 淸津軍의 攻擊은 急하게서 둘러 밀어 꼴키퍼와 橫木을 넘기지 못하고 ◀淸津의 HB와FB線은 總動員시켜 安岳의 陣地에 攻擊을 하엿스나 安岳의 HB線의 秀麗한 防禦로 노-꼴 ◀安岳의 兩左右翼의 비치보이엇스나 淸津의 『파스웍』에 一點을 리-드당한 安岳軍은 死力을 다하야 淸津의 陣地에 逆襲을 하엿스나 淸津의 FB線에게 敵의 逆襲을 許容한데 지나지못하엿다 ◀二十八分에 淸津의 猛攻擊을 하엿스나 安岳의 GK리부나서잇다가 볼이너머들어가 一點을加하엿다 ◀三十分에 다시 淸津은 一點을加하야 三點을올리고 安岳의 FB線을 突破하야 一點을加하엿다 ◀安岳軍의 最後의 攻擊을 試하야 淸津軍의 陣地에 逆襲을 해보앗스나 淸津의 堅固한 FB線의 强力한防禦로 得點치못하엿다 ◀께임은 結局安岳의HB線과FB線의 不統一(파포시숀)이가 不確實하야 結局 三對零으로 淸津軍得勝하엿다(께임七十分)

| | 【安岳】 | | | | | 【淸津】 | | | |
|---|---|---|---|---|---|---|---|---|---|
| | | 前 | 後 | 計 | | | 前 | 後 | 計 |
| 蹴門 | | 2 | 9 | 11 | | | 4 | 1 | 5 |
| 隅蹴 | | 1 | 2 | 3 | | | 1 | 2 | 3 |
| 自由 | | 6 | 1 | 7 | | | 4 | 1 | 5 |
| 懲罰 | | 1 | 0 | 1 | | | 0 | 0 | 0 |

【安岳】GK鄭 RF李 LF李 RH金 CH洪 LH姜 RW朴 RI林 CF林 LI金 LW朴
【淸津】GK張 RF韓 LF李 RH張 CH李 LH崔 RW金 RI林 CF姜 LI高 LW姜

# 今日

## 都市對抗蹴球第二日

【第二回戰】

光州對鎭南浦(午後零時半)

廣州對平壤(午後一時五十分)

京城對鐵原(午後三時四十分)

淸津對新義州(午後五時三十分)

午後零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

入場料 學生二十錢 一般五十錢 (割引券가잇슴분은三十錢으로)

本社主催

# 報國强調週間運動

# 學園에도徹底、通牒

## 物資節約觀念의涵養은勿論

## 校服校帽에純綿毛使用禁止

사변의한주기와 여기에 대처할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강조주간(銃後報國强調週間)의 실시에대하야 특히 학교가 여주간에 나하야 중요(?)를 시기하는 의견에 극히 중요한 실시기간으로 보는바(?) 본부 역시 각종행사에 총독부에 서는 지난달 각도지사 대해 지시하는 동시에 이것의 철저와 학교장에게 이것의 철저와 정신부분관계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유감이 없도록 하기를 청하는 동시에 이점을 밝히어있는데 이것 은 학생들의 기풍진작(氣風振作)에 대하야 학생들의 실시요항을 지시하엿는데 이에 금후 순면여나 순모의사용을 금하고 스테이플·파이버등의 대용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엿다

## 法專、郊外로移徙

### 半世紀間情든舊校舍와惜別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유서깁흔기왕의 모든것을 버리고 새로운 건설에 이바지하고저 새교사로 이전하기로 되엇다 이 학교의 전신은 동대문밧 흥인문(興仁門) 새교사에 의사흥인(?) 구교사와는 작별을 고하게되엿다 이학교는 시판학교 창립한 을미년(乙未年)에 설립된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로부터 조선인으로 그후이법관양성소는 법학교(法學校)로 일홈을고쳐 현재가 고쳐진바잇다 그후 다시 법학전문학교로 승격된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이학교는 이번 청량리(淸凉里)밖 새로운 교사를 짓고 이사하게되엿다

## 每日新報社

### 創立總會

每日新報社(每日新報社)에서는 조선신보를 합하야 주식회사로서 최근(崔麟)씨를 취체역사장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취체역 상무취체역 이하의 역원을 선임하엿다

代表取締役社長 崔麟

取締役副社長 李相協

專務取締役 澁谷禮夫

## 保健體操講習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으로 第十二回保健體操講習會는 來十八日부터 二十三日까지(每日午後六時半부터 八時半까지) 鐘路靑年會體育館에서 開催하기로되엿다한다 旣報한바어니와 同講習會參加申請은 今十六日까지인바 參加希望者는 男女를不問하고 至急申請하야주기바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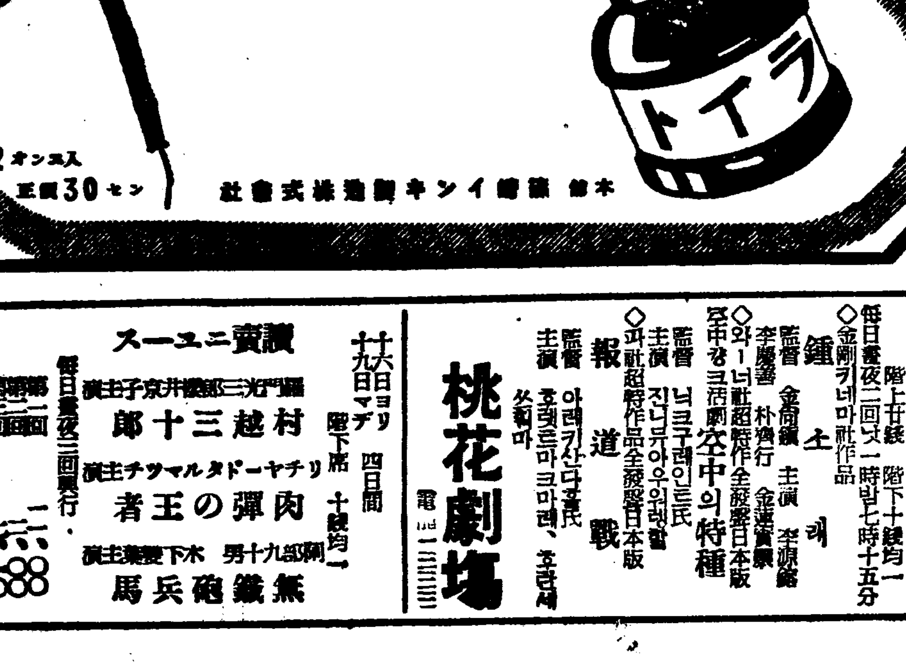
常任取締役 熊谷寬一

同 崔昌學

顧問 三橋孝一郞

## 六大學野球今日開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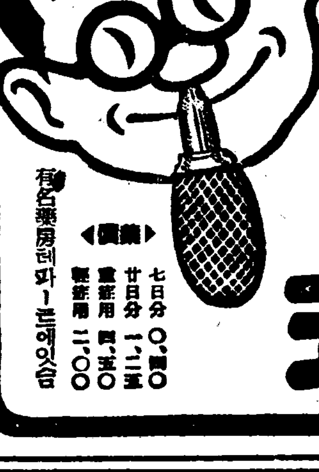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東京六大學野球聯盟春季리-그戰의 初日은 今十六日午前九時부터 神宮球場에서 加盟六大學選手百五十名의 入場式이 잇슨後 同午後零時半부터 內藤文部省政務次官의 始球式에 뒤이어 明大對帝大、早大對立大의 各第一回戰으로부터開幕되여 十五日間 擧行될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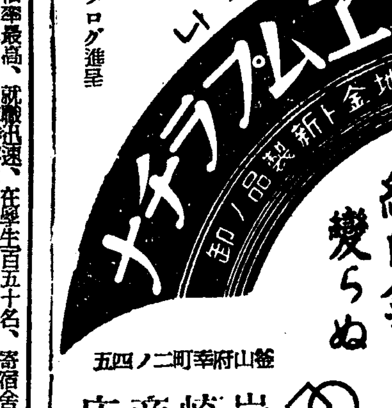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滿洲自動車學校學生募集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創立以來十六年 設備東洋第一、合格率最高、就職迅速、在學生百五十名、寄宿舍完備 活動寫眞敎育、乘用車及トラック練習 △學則請求時要三錢切手
本科 二個月卒業 受驗科 一個月卒業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電話(二)二九四四番

時代에適應한 最新強壯劑
特히一般虛弱 神身過勞
榮養障碍、神經衰弱、腺病質 肺結核、肋膜炎、性的減退、缺落症、病後恢復期、食慾不振에特効
食慾을增進하며神經及身體細胞의活力을昂進함
用量 一回四一八cc宛一日三回服用
美味芳佳 服用容易
フェロトン (훼로톤)
五〇〇 四、五〇
平壤西門通 製造發賣元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코가막히고 답답하고 불쾌한코에서 나오고 냄새를모르든이가 ミナト式을쓰셔서 완쾌까지의 교훈을이야기하엿다 지고頭腦가明快해서 精神이爽快하야 工夫나일의能率이노파젓다고 感謝의 편지가작구오고잇습니다 本劑는中毒性이업고 鼻炎이나蓄膿症을治療하고 血行을조케하고 頭腦의속까지靈이숨어드러가는妙效을一刻이나바랍니다 마리가니 흠흠하는이는 곳本劑를써서보시요
試驗用ミナト式鼻藥希望者는 四錢切手十三錢封入左記로 申込하시요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三ノ七 ミナト製藥東京營業所
有名藥房에서 파-는데잇슴
《價格》 七日分 〇、四〇 廿日分 一、一五 重症用 一、五〇 經濟用 二、〇〇



MPM 엠프라치니
カタログ進呈
純白金と變らぬ
エムプラチナ 白金地金
釜山府幸町二ノ四五
岩崎商店
電話長一五一五番·振替釜山一六一七番

國產ミシン
特約店募集
K.M.C
コリアミーシン製作所
本社 京城府[illegible] 電話 ○四[illegible]

讀賣ニュース
演主子京井櫻郞三光門尾 郞十三越村
演主チヅマルタドーヤチリ 者王の彈肉
演主葉愛下木 男十九部阿 馬兵砲鐵無
十六日ヨリ 十九日マデ 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每日晝夜二回興行
本町 中央館 電話本三〇一四

桃花劇場 電話二三三三
四月十六日早터向三日間 特別名畫鑑賞週間 階上廿錢 階下十錢均一 每日晝夜二回나一時밤七時十五分
◇金剛키네마社作品 鍾소리 監督 金尙鎭 主演 李源鎔 李慶善 朴齊行 金蓮實 ◇와-너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空中의特種 主演 닉크·푸란 監督 진니·폴안 ◇파社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報道戰 監督 에드워드·루이키 主演 죠엘·맥크리이 니디아·웨스트만 후란씨스·파마

# 中部版

## 富川郡에서는 未墾地耕作奬勵

【仁川】부천군(富川郡)에서는 독려에 솔선하야 산업개발을 표로 경기도자작농의 확립을 목표로 기수를 위시하야 조수원수명을 지난십이일부터 내각성에 파견하야 미개간지(未墾地)와 사용치 안이한 유휴지에 대한 경작을 장려하기로 되엿다 금번조사에 중요한것은 금를리를 연중 가지등에 대한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바 이와함께 산업에 대하야 부천군도 일대의 진전을 보이고잇다한다

## 黃海에強風襲來 二百漁夫消息杜絶

### 沿岸定期船도全部休航繫留 埠頭엔郎君기다리는憂鬱色

【仁川】십사일 오전여섯시 이래 인천을 중심으로 폭풍우가 덥처와서 부내각기선회사에서는 연안정기 항로를 항행치못하여 부두에는 선객과 화물이 산적하여잇다 폭풍은 아직 계속하여잇서 원을 각섬으로 출항시켯고 기점이하려나간 이백여명어민들의 배를 조사중이라는바 그네들의 안위는 아직불명이라한다 부두에는 어부들의 가족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드러오기를 기다리고잇섯다

第一▲許庸貫 李龍七 梁廣錫 徐鳳殷 孫鳳彩 兪大濬 黃升源

## 車輛稅徵收不公平 仁川府民不平藉藉

【仁川】인천부청 재무과에서 차량세(車輛稅) 증수에 부당한 종수방법을 취한다하야 부민의 불평이 자자하다는데 그내용을 드르면 자전차한대에 일년간 세금이 전조선 어데를 물론하고 이원식을 바둥에도 불구하고 인천서는 한대에 사원식으로 증액을 시켜서 고지서를 발부하엿다한다 이것도 전부를 통일하게 하여야 할것이겟스나 그러치도 안코 어떤사람에게는 종전대로 이원을 받고 어떤사람에게는 사원을 밧는다하야 부민의 불평이 자자하다한다

## 十年間勤續榮轉 金訓導表彰送別

### 十三日謙島有志發起로

【江華】서의학년 경동공립소학교(京東小學校) 수석훈도 김용찬(金容贊)씨는 소화삼년사월에 부임한이래 동교의 교무주임이란 중책을 지고 연내교육사업에 헌신노력한지 만십주년이 되엿스므로 동교학부형과 당지유지제씨는 씨의 십주년근속표창식을 거행하고저 하엿든바 의외에도 지난구일부로 경기도여주군대신공립소학교(大新小學校) 교장으로 영전하게 되엿스므로 지난십삼일오후세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성대한 표창식겸 송별회를 거행하야 상당한 기념품증정을 맛치고 주최자의 송별사가 잇섯다음 김용찬(金容贊)선생의 의미심장한 답사(答辭)에 주최이가친 결의 석별주를 나눈후 흥다성서리에 무사폐회하엿다고한다

鄭元九(京城) 鄭聖奎(驪州) 鄭憲八(豐州) 張敎奐(金浦) 李東俊(京城) 李載輿(驪州) 李壽求(京城) 馬九鳳(京城) 沈相鳳(京城) 閔致寬(京城) 鄭壽采(坡州) 趙九九(京城)

## ▲江華地方集會

▲四月十五日 江華金融組合總代會 江華城內公立小學校講堂에서開催
▲四月十六日 通水金融組合總代會 同組合會議室에서開催
▲四月十七日 江華畜産組合總會 江華城內公立小學校講堂에서開催

## 安城二竹簡易校 建設義捐金遝至

【竹山】교육열이 고조되는이때 농촌빈민의 문맹퇴치(文盲退治)를 사업인 간이학교건설에 자진하야 금천을 의연한 독지가들ㅡ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二竹面) 간이학교 건설비로 량태석(梁台錫)씨는 일천오백원을 장원리이씨문중(李氏門中)에서는 기지(基地)를 기부한사실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교사건축에 경비부족으로 공사가 느저가는것을 본 당지 정우수(鄭宇秀)씨는 자진하야 현금이백원을 의연하엿고 그외에도 작구 여러독지가로부터의 연금이 드러오다 그씨명은 다음과갓다

二百圓 鄭東秀 五十圓式 梁斗錫 辛敬孝 二十圓 梁商秀

長石(京城) 崔琮奎(楊平) 金春興(京城) 方希勳(江華) 金鳳奎(京城) 李勝熙(廣州) 金鳳培(廣州) 金聖奎(京城) 崔鳳翼(京城) 劉熙範(京城) 朴仁濱(江華) 金東鎬(坡州)

## 合自黨四十七名 一網에捕盡

### 이번엔鍾路署서檢擧

대경성의 암흑(暗黑)인 거리의 투기사(投機師) 『합백당』(合自黨)의 일운은 본정서(本町署)의 일대수색을 당시 그들의 근거지로 되여잇던 시내명치정(明治町)일대로부터 일소되여 뿔뿔이 가흐진듯이 보엿스나 그뒤로 여전히 인천(仁川)으로 시내각처에 출몰하여가면서 노름을 계속하고잇다는 정보가잇서서 이래 종로서(鍾路署)에서는 비밀리에 그들의 소굴을 엄탐중이던바 드듸어 작격하야 라디오와 전화를 노흔 『마루』중매점 경성출장소를 기하야 부내견지정(堅志町) 일백신삼번지 인천 『스』 전역두시를 기하야 신흥여거(?)에 경성출장소를 습격 정신홉일코잇던 전기출장소원(?) 등 명을 일망타진하엿다

## 검치獻納

애국부인회 황금오정분회(黃金五丁分會)에서는 회원들의 적성으로 모은돈으로써 검치 여섯개를 사서 수일전에 룡산사단병무부(兵務部)에 바첫다한다

## 地方人事

▲靑山勇次氏(竹山公立小學校訓導) 新任人事次 本報竹山支局來訪
▲有馬淸春氏(竹山駐在所巡査部長) 新任人事次 同上
▲朴仁應氏(南星病院長) 新任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崔淸昌氏(南星病院內科醫師) 同上

## 「우리에게도물을다오」

### 龍江、鹽里、大興町民들의絕叫

부내 룡강정(龍江町) 염리정(鹽里町) 대흥정이구(大興町二區)는 수도(水道)의 설비가 업스므로 잔천여호주민이 크게 곤난을 밧고잇서서 하로밥비 수도부설을 해달라는 요망이 이러나고잇다 더욱이 세동리에서는 수도물을 엇자면 약십정이상 다른동리로 가서 물을 기러오며 대개는 우물물을 먹고잇는데 근대적시설을 완비햇다는 대경성의 시민으로서 아즉까지 수도의 혜택을 입지못하고 원시적인 우물물을 먹고잇다는것은 위생상으로 조치못할뿐아니라 현재 룡강공립소학교(龍江小學校)의 팔백여명아동들까지 불통한 우물물을 먹지안으면 안될형편이며 축히 염리정 대원묘지(大院墓地)부근에서는 수도물을 한지게에 유전십원을 주어야 먹게된다한다 한시라도 업서서는 안될 음료수가 이처럼 비싼갑스로 공급되여서는 그들 생활여호주민의 생활에 일대협위가 안일수업다하야 십오일 소관서대문경찰서에 이것을 고려해서 부청에 말해달라고 진정하엿다

## 竹山金組定期總會

【竹山】경기도안성군죽산금융조합(安城郡竹山金融組合) 제십칠회 정기총회를 지난십이일오전 동조합회의실에서 개최하엿는데 동조합장의 개회사와 도지사고사(道知事告辭)로 량독 파 시국이서등 진질한토의가 잇슨뒤 동조합역원을 개선하엿다

▲監査 辛容鎬 閔泳寬 中野

## 今年度에賦課될 開城府稅六萬圓

### 戶別稅比昨年二割增

【開城】금년에 개성부민에게 부과될 도세(道稅) 호별세(戶別稅)는 이만팔천칠백오십오원이며 부세(府稅)는 오만오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도세는 약일천원가량의 증액으로 큰차이가 업스나 부세는 일만오천원의 거액의 증가로써 부민에게 부담을 더욱 부겁게하고잇다

그원인은 해마다 늘어가는 세출예산액을 대부분 부민의 수입에서 염출코자 하는대문이라는바 이로 인하야 오천오십원에 부과될 금년도 호별세는 매호당평균 작년도엔 십오원육십전이든것이 십육원육십전으로 배정될것이라는바 즉전년도에 비하야 이할가량이 증가될것이리고본다

## 醫生講習所 合格者三十名

경기도 위생과의 경영으로 지난삼월에 삼십명의 제일회졸업생을 내인 경기도의생강습소(醫生講習所)에서는 이번에 제이회강생을 모집하엿는데 응모자중에서 삼십명이 합격되엿다 그씨명은 다음과갓다

李榮九(始興) 金蘭山(始興) 朴虎凡(始興) 許利福(漣川) 柳谊俊(仁川) 林顯濂(金浦) 金…

## 期成會無誠意로 中學設置運動不振

### 開城有志들은解體主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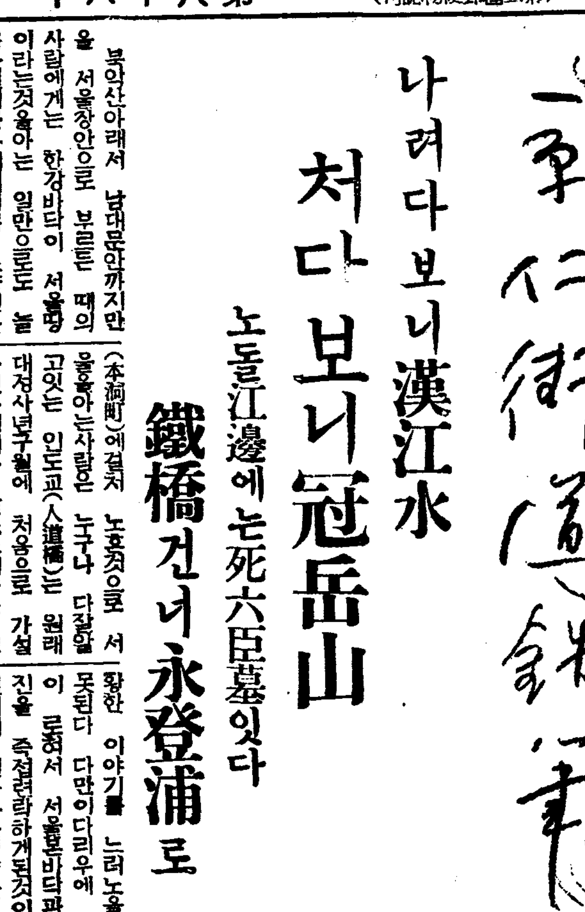
【開城】개성에 남녀공립중학교를 설치하자는 문제는 이미 경기도에 건의안(建議案)도 통과되엿고 또는 부내실업가 유지들도 기성회까지 조직해서 이십오만원 기부금모집운동에 분발하리라하야 부민들은 자못 기대하여왓섯는데 이래 근두달이 되도록 해셔 적극적인 활동이 보이지도 안고 서유원간에는 서로부담액을 적게하려는 야심에서 흥은 호협합동업으로 배정하자거니 팔자거니 하는통으로 서로의견만 결렬되야 결국은 유야무야한 상태에 빠저 차자로 열이 식어가고잇는 현상이다 그래서 일부유지와 언론관계자들은 전기 기성회를 해체케하고 제이단공작으로 부민대회(府民大會)를 개최해서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도록 비장한 결심을 갖고잇다는데 금후진전이 어지될는지 자못주목되는바이다

## 時局講演、映畵에 出席者二十萬名

### 京畿道內의成績良好

경기도에서는 삼월십일부터 동월말까지 도내각지에 현의장교의 군사강연회 전시뉴-스영사 ○○부대 전의좌담회를 하엿든데 참석인원은 이십만명이상에 달하야 예상이상으로 도민의 시국인식에 조흔성적을 내엿다한다

# 東仁街道鐵筆로게一走 ②



## 나려다보니漢江水 처다보니冠岳山

### 노돌江邊에는死六臣墓잇다 鐵橋건너永登浦로

북악산아래서 남대문안까지만을 서울장안으로 부르든 때의 사람에게는 한강바닥이 서울땅이라는것육아는 일만으로도 놀리운일의 하나이러니와 로량진을 지나 영등포까지 즉 시흥군(始興郡)북쪽까지를 차지하고잇다는 사실은 깜딱하면 서울이 가지고잇는 고유한 이상을 히미하게하는 정도이다 룡산을 숙나서서 한강을 바라보면 첫재로 눈을 뜨게하는것은 새로노힌 한강철교의 웅대한 자태이다 부산으로가는 일등도로를 경성부 이촌정(二村町)에서 한강건너 본동정(本洞町)에 걸치 노흔것으로 서울을 아는사람은 누구나 다잘알고잇는 인도교(人道橋)는 원래 대정사년구월에 처음으로 가설하엿든것이나 불로드러가는 교통량(交通量)을 지량할수업서서 소화구년팔월에 다시 이백여만원의 거대한 공비를 드려 재작년시월에 준공된것이 지금보는 이웅장한 다리이다 이설계전부를 내무국에잇는 최경렬(崔景烈)이라는 청년기사가 낸다는것도 이리와함께 기억할것이는 이야기거리이다 이다리 이야기만으로도 상당히 꺼리가 만흔터이나 장황한 이야기를 느러노을 사정이 못된다 다만 이다리우에 전차길이 로혀서 서울혼바닥과 로량진을 즉접련락하게된것이 경인일체에 얼마나 큰영향을 주고잇다는것만을 알면그만이다 이것파아울러 도시교통기관으로서 가장 대중적인 전차가 룡하고안하는것이 연선발전에 얼마나 큰힘이 되는것을 이곳에서도 충분히 차저볼수잇는것이다 이점을 경전(京電)당사자들이 리인민을 생각만코 부민에대한 봉사적정신(奉仕的精神)에서 사업을 하여나가지안호면 안될 중요한 문제이다

◇

로량진일대는 아페한강의 맑은물을 끼고 뒤에는 경기금강(京畿金剛)이라고 일컷는 관악산(冠岳山)을 등지고잇서서 큰자그대로 산명수려(山明水麗)한곳으로 명수대(明水臺)는 지금도 주택지로 대번창을 하고잇는중이지마는 장차는 경성부민의 주택지로 또는 일대환락경(歡樂境)으로의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잇다 봄이면 한강에 쪼각배를 띄워 무엇을 슬거리는지 질기는 젊은이들의 행복스러운 얼굴 여름이면 염염(炎炎)의 독아니가되는 시가를 피하야 강물에 몸기는 시원한맛 가을이면 삼삼오오짝을 지여 관악산의 승경(勝景)을 찻는 하이카—의 콧노래소리가 해마다 만허가는 모양은 이지대에서만 볼수잇는 특색이다 발길을 돌려 잠간들러서 사륙신묘(死六臣墓)를 참배하엿다 로량진역에서 한강다리쪽으로 경인가도를 약구마정이나 올러오면 길에 빼ᄍ목되는 언덕중복에 『朴氏之墓』『成氏之墓』『李氏之墓』『兪氏之墓』라고 새인 네개의 비석이 서잇다 목욕하서잇는 어깨가이 비석들은 고인의 충절을 영구히 자랑하는듯하다 이묘들은 설명할것도업시 단종애사(端宗哀史)의 유산으로 박팽년(朴彭年)씨 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류성원(柳誠源) 하위지(河緯地)는 분의묘는 어찌되엿는지 자최를 찾을수업다 경인가도를 벗겨 연건으로 돈김에 이왕이면 경기금강관악산을 어찌그대로 지내갈수잇스랴! 소금강관악산의 산은 로량진전차종점에서 일직선으로 시오리길을 가면 남태령(南泰嶺) 그곳에서 다시 십리남짓가면 당는곳으로 남한(南漢) 북한(北漢)의 두산과 아울러 서울주위에 솟아서잇는 경치조키로 유명한 산이다 그속에는 삼막사(三幕寺) 연주암(戀主庵)을 비롯하야 십여개의 절과 암자가 이곳저곳에 백혀잇다 무궁진한 사화(史話)를 가지고잇스나 본래의 목적과 멀다나 거리가 먼 이야기임으로 모르는척하고 다시 경인가도로 도라온다 로량진서 영등포가는길은 국도(國道)이므로 넓기는하나 매우 화물자동차 택씨 자가용등 자동차가 련락부절로 래왕하야 그야말로 길이 복잡하다 중간에 여의도(汝矣島)비행장과 대방장지대 영등포로 래왕하는 사람과 화물이 가리 지금으로 다섯키로로 경전뻐스가 십오분에 우리를 시러다주고잇스나 전차길이 업는것은 무엇보다도 유감이다. 한강을 건너갈바에야 이왕이면 영등포까지 내놋는게 당연한일이 아닐까 생각하는것은 기자뿐이 아니리라 시수민들이 수차 당국에 진정한것으로도 짐작할수잇는일이다 경전당국 그실현을 촉진함이 정상 물 가질수업슬가? 우리는 경인일체를 달성하기위하야서도 이곳에 전차길이 속히 개통되기를 바라고십다 !!(金秉濟記)!!

(사진은 관악산)


# 朝光 五月號 定價四十錢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 私學財團의再吟味

世專基地問題와그歸趨
梨花女專의現狀
延禧專門의將來
大同工專의現在와將來

▲獨墺合併과歐洲政局……鄭鎭燮
▲大英帝國의外交政策轉換……溫樂中
▲物價問題의時局特徵과對策……洪鍾仁
▲增稅와百貨店調査……一記者

## 五月의創作

短篇小說 설 李箕永 (鄭玄雄畵)
短篇小說 그늘미테서 金沼葉 (金熊超畵)
中篇小說 明暗譜 嚴興燮 (崔根培畵)
短篇小說 李初試 李雲谷 (崔根培畵)
長篇小說 天下太平春 蔡萬植 (金熊超畵)
探偵小說 殺人藝術家 金來成 (鄭玄雄畵)
歷史小說 帝星台 金東仁 (鄭玄雄畵)

나의最近生活……孫基禎

## 五月의詩歌

▲카ㅡ니발……朱永涉
▲黃昏……金珖燮
▲어둠(外二篇)……吳時泳

## 나의生活★報告書★

▲隱遁生活의憂鬱 呂運亨
▲現實生活의苦悶 李寅善

英文壇巡禮記……鄭寅燮
도스토옙흐스키傳……白鐵

## 色紙特刷

사랑의日記……芝山
쇼팡과그의戀人……洪蘭坡
애기新郎과老新婦……南山松

名唱丁貞烈의死……一記者
海龍丸遭難記……李俊相

## 광대의史的發達과그價値

魚鳥同室主人

## 轉向된劇研解剖

一聲生

▲移轉된李王職博物館史……一記者
▲朝鮮語辭典編纂經過報告……K記者
商紂의愛姬妲己……車相瓚
칼을빼든樵夫……申鼎言

朝光 타임스 朝光讀者에게 無代로 進呈합니다

## 初夏의朝鮮山河

豆滿江……金珖燮
白馬江……朴魯甲
洛東江……民村
海金剛……李軒求
白頭山……李相昊

表紙 崔根培

자미잇는 記事만 실리는 朝光五月號!!

## 畵報

▲湖畔 ▲新劇의春香傳 ▲朝映의宣傳隊 ▲金鯉魚의散步 ▲五月國의騎士 ▲愛無情

# 『동키호테』에 남은 '살라핀'의 印象

세계적인『바스-성악가(聲樂家)』『표오돌·살랴핀』이 파리에서 세상을떠낫다 직접 그의육성(肉聲)을 듯지못한분이라도 음악을 애호(愛好)하는이라면 누구든지『볼가의뱃노래』나『어두운숲에서』라든가 더욱 가극(歌劇)으로는『이꼴고꾼』『동키호-테』등을『레코-드』를통하야 친하고잇슬줄로밋는다。

더욱『살라핀』이 주연한영화『동키호-테』의 인상은아직도 우리의머리속에 새로웁다 이작품은 원래 유명한『세르반테스』의 세계적불후(世界的不朽)의걸작으로 그 비참(悲慘)하고도신랄(辛辣)한 풍자(諷刺)는영원히 인류의역사우에 빗나고잇다

그런데『살라핀』의『동키호-테』는 그것이 문예영화일뿐만아니라 음악영화로서 최고최대의 작품이엿다

아직도 우리의머리속에 잇는여개의장면을 추억한다면 차리한 기사도(騎士道)의꿈에 차서 현실을저바리고 우울에 짜힌채 독서와 이따금을단질이추양으로 노래부르는장면

멀리 여행의길을떠날때 평장한 갑주(甲冑)를 몸에걸치고 노피 준마(駿馬)등에안저 당나귀를 잡어탄 종복(從僕)『산쵸』와함께 떠날때의 노래와 그의기(意氣)! 그어느 해변가에서 위대한 자연-태양、해양(太陽、海洋)을 대하야 그의 힘찬노래- 모든 추악한 인간의현실에서 비로소 완전히 해탈(解脫)된 희열(喜悅) 쇠사슬에 얽켜가는 유형수(流刑囚)를 석방(釋放)해주고는 도리어 죄수들의 돌

팔매를맛는 그리고 가장비장하고도『그로테스크』한 파경적 장면은 이『동키호-테』가 풍차(風車)를 거인이라고하야 돌진하다 손으로 조롱하고 말려드럿다가 풍차(風車)의 날개에걸려 회전하는광경! 실로 눈물업시는 볼수업는 장경 드디어 모든 이상(理想)과 정의(正義)의세계에서 현실적으로패북(敗北)당한『동키호-테』가 양(羊)을 모라넛는 어리석어던져 뭇사람의 비난과 조소(嘲笑)속에서 다시 거미줄친 제방에도라와보니 모든 이상은 한가지로 환상이오를 는 불꽃속에 아끼고 애독하든 고서의서적 퍼더부러 한줌 된 … 『동키호-테』의 최후의 침울하고 비장한노래소리는 지금도 우리의머리속에 남엇섯다

『죽으라고 기사는 가버렷다 그러나 여기 남은 한줌의 재는 세상이업는 정의를 따르던 사람의 침울한이야기를 전해주나니 이것이 불효(不肖)를 영원의 성서(聖書)』

『동키호-테』한권이오니 어마조라 노래와함께『살라핀』도 도한 이세상의 기사(騎士)와가티 비장한 일생을 마치것이 아니엿든가? (서지오간을『동키호-테』로본장한살라핀』)

一記者

# 演藝娛樂

## 映畵異變

# 듸-트리히의 "天使"도 問題

양화수입금지(洋畵輸入禁止) 당한영화중 또하나 새로히문제된 작품이잇다 『에른스트·루빗치』감독으로『마를-네·듸-트리히』가주연한『천사』(天使)가 도한검열망(檢閱網)에 걸리엿다 이작품엔『듸-트리히』이 외에『하-바-트·마-샬』과『멜빈·다그라쓰』와『에드와-드·호-톤』이 공연(共演)하게되엿다『루빗치』와『듸-트리히』의 첫콤비로 상당히 주목되여 오는작품이다。

이작품내용을 간단히이야기한다면 무대(舞臺)는 파리(巴里)로서『듸-트리히』는『마리아』라는 천사와가티 아름다운여성으로 등장한다『마리아』가 차저간 공작부인(公爵夫人)댁은알고보니상류신사(上流紳士)를부인에게 소개하는장소엿다 여기서『마리아』는 한영국신사(英國紳士)에게소개를바덧다 이신사가『마리아』의 일홈을무르나 절대로 일홈을 말하지안는다 그래서신사는『마리아』를『엔젤』(天使)이라고 불넛다 그다음주일 다시만나기를 약속한다 다음은 무대가 론돈(倫敦)으로바뀐다 영국외교관(英國外交官)『바-커』경(卿)이『쥬네브』에서 도라와보니 안해『마리아』는 자기침실에 잇지안코 남편의 침실(寢室)에 드러누어잔다 그때문에『바-커』경은 안해의침실에서잔다 어튼날아침 전보(電報)가『바-커』경에게왓다 문을 노크하고드러와보니 부인『마리아』가 자리옷입은채 전보를 밧는다 그전보는『마리아』가『파리』에서만난 영국신사에게서 온것이다。

그후『마리아』는 영국신사와 남편『바-커』경이 친구인것이알려저 가정의평화는완전히 유지된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나『루빗치』의 독특한수법(手法)과 수완(手腕)을 보여주고잇다『마리아』에『듸-트리히』、『바-커』경에『하바-트·마-샬』영국신사에『멜빈·다그라스』가 나오게되엿다

# 라디오

**十六日(土曜)**

◇正午(東)後報 ◇(東)土曜콘서-트(第十回) 八、프릐-드 東好寛 벤올라 藤田經秋

◇午後一時 蹴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戰』

◇同六時 라디오노리『아치걸』 朝陽어린이그룹 指揮 李順伊 伴奏 金喜貞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人生과文學』 盧子泳

◇同七時三〇分 講演『發明과科學』 高工敎授 安東赫

◇同八時 피아노獨奏(레코-드) 소팡作品 一、자장歌作品五七 二、가、華麗한圓舞曲 나、練習曲G플렛트長調(黑鍵) 다、夜想曲E플렛트長調 라、마주르카C샤프短調 코르토- 파데레우스키

◇同八時三〇分 京畿歌謠 一、孔明歌 二、山念佛 三、긴난봉歌 四、樂湯歌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四五分 大笒獨奏 一、散調 二、鳳雀吹 朴鍾基 鼓手 韓成俊

◇同九時 野談『奇蹟』 金灑雲

**第一放送**

◇正午(東)土曜콘서-트 ◇午後六時(東)歌舞伎 ◇同六時二五分 講演(京城) ◇同七時三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東)講演 ◇同八時(東)物語 ◇同八時三〇分(匪)天吹 ◇同八時四〇分(大)義太夫

**十七日(日曜)**

◇正午(東)時報 레코-드音樂

◇午後零時四五分 蹴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戰』

◇同二時三〇分 春季競馬實況(國語)-京城新設町競馬場으로부터中繼- 昌慶苑御賞典競走實況

蹴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戰』

◇同六時 幼年童話 一、키다리와 좀팽이 二、꾀쟁이토끼 秦賢圓 金相德

◇同六時二五分 講演『社會生活과公德』 李東熙

◇同七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逆旅歌 二、唱劇調 제비박씨물고나오는데 鼓手 韓成俊 宋萬甲

◇同八時 歌謠曲 一、비에젓는情話(劉) 二、港口는 슬퍼요(金) 三、不死의薔薇(劉) 四、嘆息하는캐라반(金) 五、눈물의黃布重(劉) 六、暴風이우는 꽃(金) 七、新婚아까쓰기(劉、金) 伴奏 DK管絃團 劉鍾燮 金仁淑

◇同八時三〇分 京城立唱(京城) 一、遊山歌 二、豐年歌 三、오돌독 四、楚漢歌

◇同八時三〇分 西道소리(平壤) 一、긴아리 二、三、四、 金鍾聲 金春紅

◇同九時 라듸오小說『봄맞한안해』-盧春城作- 朗讀 李俊淑

**第一放送**

◇午後〇時二〇分(東)野球 ◇同六時(東)童話 ◇同七時三〇分(東)日曜演藝 ◇同八時(東)俗曲 ◇同八時二〇分(大)드라마 ◇同八時五〇分(東)浪花節

**十八日(月曜)**

◇正午(東)時報 (東)和洋合奏 一、旅道中 池之谷要治作曲 二、幻想曲『거북춤』 馬口駒夫作曲 三、叢想曲『競馬』 池之谷要治作曲 四、叢想曲『訪花』 藤井弘也作曲 미구니和洋合奏團 指揮 岡村鄕吉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어린이를都市로보내는父母들에게』 東亞日報 黃信德

◇同四時 뉴-쓰後 蹴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戰』

◇同六時 어린이科學『傳書鳩』 李德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徐椿

◇同七時 뉴-쓰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未成年者喫煙禁止와靑年訓練에對하야』 總督府社會敎育課長 金大羽

◇同八時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曹弄仙 金柳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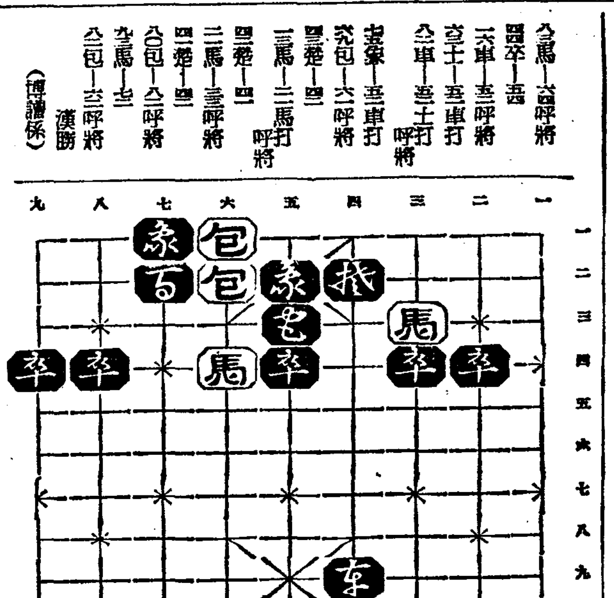
◇同八時二〇分(東)管絃樂 一、歌劇『월렴텔』序曲 롯시-니作曲 二、各國鄕土舞曲 가、슬라브舞曲 드볼작-크作曲 나、노-르웨-舞曲 그리-크作曲 다、西班牙舞曲 第五第 大브라-스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篠原正雄

◇同八時五〇分 野談『因果』 廣秋岡

**第一放送**

◇正午(東)和洋合奏 ◇午後六時(城)舌戰 ◇同六時二五(東)講演 ◇同七時三〇分(大)浪曲 ◇同七時四〇(東)講演 ◇同八時二〇(東)管絃樂 ◇同八時五〇分(東)物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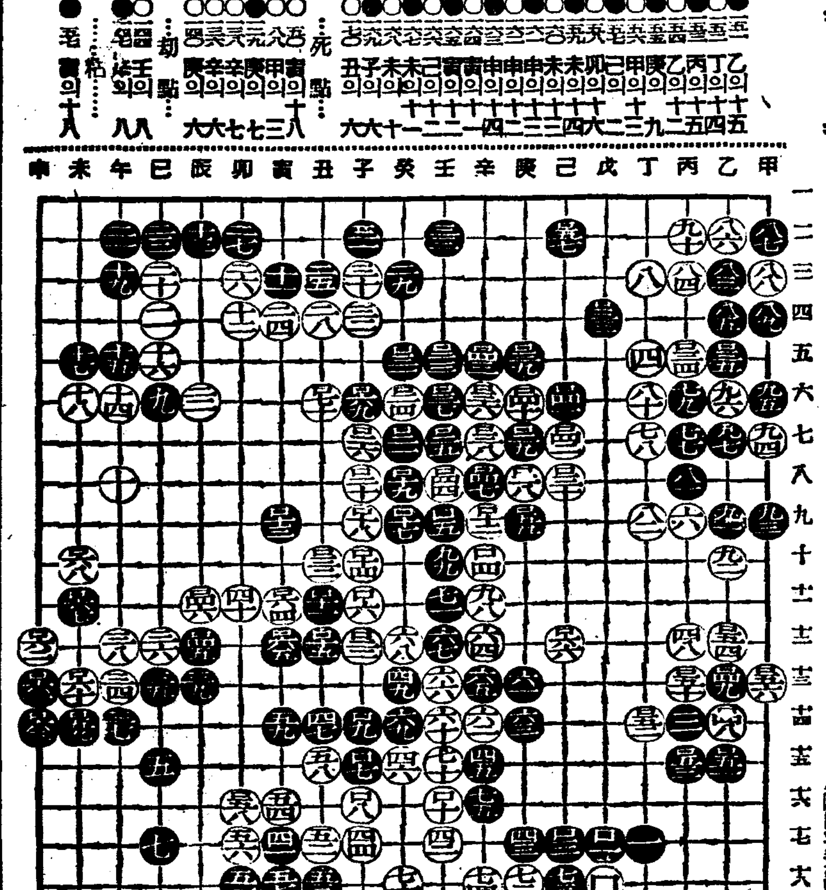
# ◇博譜大集 124 【昨題解答】



# 國手爭覇譜 (11)

白 任佑植
黑 金秉浩
(四目半込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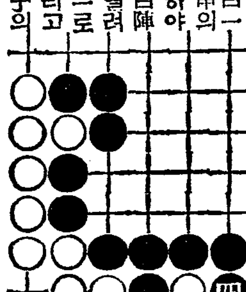
本社獨占



# 白의誤算으로 惻爭에失利라(十一)

前回에서 黑一四九 乙의一三이 無理인것과 그러나 白一五〇 丙의一三이 黑의無理를 利用치못하야 하갓適例의 酬應으로써 始終한것을 말하얏거니와 白一五〇가 丙의一三에두지말고 乙의一五로 一四의 白一點이 直走하면 圖와가티 白一乙의一五、黑二丙의一三、白三 丙의一八、黑四 丁의一八、白五 乙의一七 黑六 丙의一六、白七 乙의一六이 되야 黑地中에서 白陣이 크게산다 그리고 그反面에 黑地가 堅固해지고 또이方面의 白地가 薄弱해지나 그로써 右面下隅의 黑地가 破壞된것을 補償할수잇스나 惻爭이 꼿나지아니한것만은 黑의損이아니라 할수업다 黑一五一 乙의一五、白一五二 丁의一四、黑一五三 丙의一五、白一五四 乙의一二는 모다通例의 酬應이오 黑一五五 庚의七로 白三點을 取한것은 交換이어니와 白一五六이 甲의一三에두어 三、四戶에 지나지안는 白一點을 取한것은 全혀 局勢를 살피지못한 일이다 다른여러곳은다 그만두고라도 右邊中央의 戊의一三、上邊中央의 庚의二와 가튼 大場은 모다 一着十數戶의 利害가 잇슴을 생각치 아니하면 아니된다 黑一五七 巳의二는 最後에 남어잇는大場으로서 조흔打點이오 白一五八 卯의一四는 己의一二에 두는것이 올타고 생각한다 어째 그러냐하면 前者보다 後者가 큰것만이아니라 白이 卯의一四에두니 黑이 左邊下隅를 鞏固히 擁護하면서 左邊中央의 白의應手處를 남기게되야 마츰내 白의先手를 黑에 奪取함과가튼 結果가 생김으로써이다 黑一五九 未의一四、白一六〇 未의一三、黑一六一 申의一三、白一六二 申의一二、黑一六三 申의一四、白一六四 寅의一一、黑一六五 寅의一二等은 모두 通例의酬應이어니와 白一六六 己의一二는 最後에 남아잇는大場으로써 조흔 打點이다 그리고 黑一六七 未의一一은 卯의一三에 白陣의 後首이 열여젓스니 넘무일흔 侵入이오 白一六八이 未의一二로 連하지안코 未의一〇에둔것은 了解할수업다 다시말하면 白一六八이 未의一二에두어 申의一二의 白一點을 連한다하야도 우에서 말함과가티 白陣은 卯의一三에 後首이 열려지고잇스니 黑은 己의一一로 白陣을 兩斷할수업다 그리고 黑一六九 子의六은 먼저子의五에두어 白으로하야금 丑의五로 應手케하야야 一戶半의利가된다 白一七〇 丑의六은 缺할수업는 打點이다

(參考圖)



# 長篇小說 濁流 【178】

蔡萬植 作
鄭玄雄 畵

老童『新婚日記』(五)

『대체 왜 실려두?』

『공부 시켜주는 의리가 연애나 결혼을 간섭할테니깐...』

계봉이는 비깃비깃 웃스면서 승재의 낫판을 본다。

승재는 얼이 떡! 나온다。

『쓰잘디 업는 소리를!......아 무려믄 내가 머 그만 공부 못 시켜줄 사람이까?......내가 공부 좀 시켜준 갑스루 결혼 의지루 하잴가?』

『남서방은 다 그러라지만 내가 그러를 못하면 어떠커나?......결혼은 할수가 업는데 결혼으루라두 가퍼야 할 의리라면?......』

『혼동할 필요는 업서』

『필요야 업는줄 알지만 이론보다두 실지가 더 명령적인걸 어떠커나?』

마침 전등이 힘어서 꺼지다 아직 긴게 안흔 망선여다。그래도 승재는 생각이 풀어 벌떡 일어섯다

『자 그건 숙제루 두어두구서 ... 나허구 가치 여기서 위선 저녁이나 먹더라구?』

『글세...』

『무얼 대접하나?... 이런 아가씨를 상밥집으루는 모시구 갈수 업구...헤!』

『상밥? 여관두 안정했수?』

『여관은 별것잇나! 더 지저분하지... 병원 뒤루 조선집이 한채 따로게 잇서서 자취를 하까하구 아직 상밥을먹구잇지...』

『그 궁상출 인제는 그만두어요! 자취는 무어구 상밥은 다 무어야!』

『그러커들랑 계봉이가 좀 와서 잇서주지? 밥두 지어주구...』

『그러까?... 재미 잇술걸!』

『식모나 하나 두구서... 오래잔어 명님이두 올라오구 할테니까...』

『하하하! 누가 보면 결혼햇다구 그리게?』

『헤! 괜찬하... 누이라구 그리지?』

『누이라구 햇다가 결혼은 어떠커나?』

『어떠나?... 그런데 옹옹애할이 아니라 언니집에 잇기가 맛당찬타면서 내일이라두 오게하지?....』

『언니 떠어노쿠서 나혼자 나오든 못해요。그러기루 드렀스면야 벌써 하숙이라두 잡구 잇섯게?...』

계봉이는 협 초봉이를 꿈꿈생각하고 얼굴을흐린다。

승재 역시 초봉이라면、한가드란 감회가 업지못한 자리、묵묵히 뒤짐을 지고서 계봉이가 안젓는 동안 두어 두번지난다。

계봉이는 이옥고 엿다가、골을 돌리면서 승재의『까운』자락을 잡고 끈다。

『저-여、언니두 데리구 가려오라구 허면、오지만...』

『언 니 두? ... 데리구?...』

『왜? 못써?』

『아-니 못쓴다는게 아니라...』

『그런데 왜?』

『아니야、나는 아무래두 괜찬차핀...』

『날 공부 시켜주니 차라리 그러케 해주엇스면 더 아승찬허지?』

『그런 교환조건이야 머...』 건성으로 중얼거리면서 승재는 딴생각을 하느라、도루 마루청을 오락가락한다

승재는 초봉이가 그새 겪난해 내려온 사정의 자세한 곡절이랄지、더구나 서방 생사조차 염의로 할수업게크름 정바련 형편인줄은 아직 몰으고잇다

계봉이가 한번 서신으로 대강 경파를 적어보내주기는 했섯으나 지극히 간단한 줄가리뿐이어서 그걸로 기픈 정상을 짐작할 재료는 되지못햇섯다。

그래 그저 막연하게 불행하거니 해서 불상하다고 만 역일 따름이엇섯고 허지만 조차 기회를 보아 달리 새로운 생애를 개척하도록 권면도 하고 두루 주선도 해주고하려니 하는 역시 막연은 하나마 간절한 성의가 업던것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어날에 계봉이와 드디어 마음을 허하여 서루 맛 터놋고 지내게 된 게제이자 공교롭다 짧든지 동시에가서 초봉이를 저이들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드린다는 문제가 생기고 볼작 승재로서는 더러 불길스런 생각이 들지안흘 못햇다。

만약 셋이서 그러듯『그룹』을 이루엇다가 서루서루 째애감정의 알륵이 일던지 하고보면 어떠케 할것이나는 말이다

그럴 날이면 일껀 구해주엇다는 초봉이한테 도리어 새로운 슬픔과 불행을 갓다가 전장시키게 될것이니 그것이 걱정이 아닐수가업다。

미상불 그러하다。그러나 좀더 기피 캐고보면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와가튼 감정의 알륵으로해서 승재 저와 계봉이와의 사랑에 파랄이 생기지나안홀가 하는게 보다 더 절박한 불안임을 알수가잇다。

그러나 거기서 헤헨 더 그미를 헤치고 보롱이면 또다시 미묘한 심경의 갈등이 얽키어잇슴을 볼수가 잇슬것이다。

스키-香油 特約店
大募集ポマート

一箱 組合分
(現品見本代五圓也)

大阪市港區八幡屋大通一丁目
發賣元 努力社化粧品部
振替大阪一〇九二一六番

短歌 皐々天邊 南宮仙 林방울
流行歌 金剛山打鈴
新譜 外八種
特約店希望者ハ本社ヘ申込乞
高麗レコード蓄音器合名會社
大阪市浪速區河原町二丁目
日本發賣
五月新譜
고-라이레코-드

쎄-슨은正히目前에
昭和十四年度努力社カレンダー의 代理店을 一府郡一店式 大募集
(見本은 一圓也) 但 新見本은 本年六月十五日以降에 되오니 希望者는 新見本代五圓을 振替大阪一〇九二一六番으로 付送하시오 先着의 順序에依하야 代理店을 定합니다
大阪市港區八幡屋大通一ノ一六〇
努力社カレンダー部
振替大阪一〇九二一六番

總額二十五萬圓·新春大景品附大特賣!

百補丸한제사면
발재봉틀、純金時計줄、황소、삼칭자개장 백동칠첩반상기、자전차등을타게된다

勿失好期! 只今이百補丸服用의最好期
●大補元氣 補血强壯劑로京鄕各界 貴族名士를爲始하야 滿天下服藥家諸位의 絶大한 賞讚과 愛用을밧고잇는 百補丸은 事實!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突破하고잇슬뿐아니라 百補丸이 天下無敵의 大强壯劑로世界各國에까지 輸出되는것도 오직 그處方이神秘하야 누구에게든지 그効力이卓越하고 뚜렷하게나는까닭입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 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야 안되는분
◀肩痛이 甚하고 口味와 食慾이없고
◀腰痛이 甚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
◀過飲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 ...
老하는분은 百補丸을쓰시요 ...

過色 過飲 過勞로因한 早老와虛弱엔 百補丸以上이 다시업습니다

●只今百補丸을服用하면 藥効도 잘날뿐아니라 二重으로 大景品을타게됩니다 더욱이 空籤은一口도無하므로 大景品은누구나 다타게되며 等外賞까자라도 一、二等賞과 對等의價値잇는 珍貴品을 進呈하는 公平한特別式 景品特賣입니다 이런機會에 効力조흔 百補丸을 쓰세요

봄철에 百補丸을服用하면 効力이倍勝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肝補心補脾補肺補血補氣 根本的回春 壯陽强精强筋强骨 借力 平生無病 健康長壽劑
百補丸
一劑十圓

勿驚! 朝鮮初有의大景品
景品만總額八千九百八十圓
●누구나타는大景品種目

| | | |
|---|---|---|
| 特等 | 一人 | 足踏裁縫機(발재봉틀)一臺 |
| 一等 | 二人 | 純金時計줄〔男子用 和信製品〕一組式 |
| 二等 | 五人 | 黃牛一頭、三層자개장、十八金腕卷時計 |
| 三等 | 二十人 | 高級大型洋服欌、大型鋼鐵重金庫中一品 |
| 四等 | 一百五十人 | 自轉車一臺、純白銅七層饌床器一式 電氣時計(大型掛用)ラヂオ(四球)中一品 |
| 五等 | 三百人 | 卓上時計、緣付體鏡、毛布(요)、家庭用私設燈一式中一品 |
| 等外 | 全部 | 洋傘、世界一週萬年筆中一品 栗谷先生、金玉均先生、靑田先生等의眞筆屛風畵幅一組式 |

特等으로부터 等外까지全部當選、空籤은一口도無함 等外도 全部珍貴賞品

特賣規定
◀百補丸 一劑注文하시면 景品券二枚式
三劑共同注文하시면 謝禮品一劑를 無料添呈하는外에 景品券六枚를 進呈합니다 (定價五圓마다 景品券一枚式의比例)

特賣期間
自 三月一日
至 五月末日

當選發表 七月五日後 本紙上에發表함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一劑 七圓
부인자궁병、냉병、경도부조、대하증에 婦人百補丸

京城府堅志町五九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